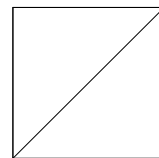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12. 18. (제 6 회)	

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

제 출 자	관계부처 합동
제출 연월일	2023. 12. 18.

1. 의결 주문

- 「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」을 붙임과 같이 심의·의결함

2. 제안 이유

-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동반성장 필요
-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 심의·의결한 「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」(’22.11)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

3. 주요 내용

-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분야 40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생태계 구축
 - (원천기술 확보) 수소 기술의 핵심전략기술 지정 및 범부처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, 수요기업 중심 R&D 지원체계 도입
 - (사업화 촉진) 초기 수요 창출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사업화 여건을 조성하고, 특화단지 등 국내 사업화 지원 기반 확충
 - (공급망 강화) 수소산업 핵심광물의 수급 관리 강화, 공급망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, 국내 기업이 GVC 참여 확대

4. 검토 사항

-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바, 특별한 쟁점·검토사항 없음

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

[요약본]

2023. 12. 18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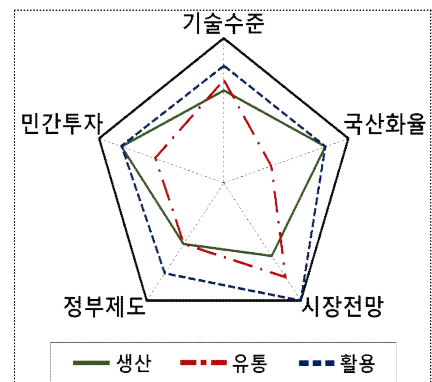
관계부처 합동

I. 수립 배경

- **(수소산업 경쟁력 강화)** 수소산업 육성 초기부터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 필요
- **(에너지 안보)** 안정적인 수소의 공급·활용을 위해서는 수소 소부장 산업의 흔들리지 않은 회복력(resilience) 확보가 필수적
- **(주력산업 탈탄소화)** 자동차·조선·철강·화학 등 전통산업 환경규제 강화 추세 下 소부장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기반 탄소저감 추진

II. 수소 소부장 산업 진단

- **(분야별 분석)** 생산분야는 신속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화 여건 마련 지원 필요
 - 유통분야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기 기술 역량, 제도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이 시급
 - 활용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선점 지원 필요



- **(시사점)**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경쟁·협력에 신속히 대응하고, 핵심 수소 소부장의 공급 안정성도 강화해나갈 필요

III. 비전 및 추진전략

비전	✓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		
목표	✓ '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% 달성 ('22년 40%) ✓ '30년 글로벌 수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('22년 2개)		
추진 과제	1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	① 범부처 연계 지원 강화 ② R&D 지원 체계 혁신	③ 미래 원천기술 확보 지원 ④ 해외 기술제휴 지원
	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	⑤ 초기수요 창출 ⑥ 규제개선	⑦ 사업화 기반 확충 ⑧ 수소 전문인력 양성
	3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	⑨ 핵심광물 수급 관리 강화 ⑩ 공급망 상시 관리 도입	⑪ 해외 GVC 참여 지원 ⑫ 글로벌 소부장기업 육성

IV. 주요 정책과제

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

- **(범부처 연계 지원)** 수소 10대 분야* 40대 품목을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('23.下)하여 R&D, 으뜸기업 등 제도적 지원 확대
 - * ^[1]수전해, ^[2]수소 충전소, ^[3]수소 운반차량, ^[4]액체수소 운송선, ^[5]모빌리티용 연료전지, ^[6]발전용 연료전지, ^[7]수소터빈, ^[8]암모니아 합성·분해, ^[9]수소 저장·배관, ^[10]수소엔진
- **(수소 R&D 혁신)** 연료전지 중심의 지원에서 수전해, 수소엔진 등 10대 전략분야, 40대 핵심 품목으로 신규 R&D* 대상 확대·다변화
 - * 수소·연료전지 분야 R&D 신규사업 예산 : ('23)28.2억원 → ('24 정부안)477.8억원
- 수소 R&D 성과 제고를 위해 *앵커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, *실증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양산촉진형 R&D 제도 도입
- **(미래 원천기술 확보)** 수소중점연구실 지정을 통해 암모니아, 액상 유기화합물 수소저장(LOHC) 등 미래 소부장 원천기술 연구 지원
- **(기술제휴)**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투자(합작법인 설립 등) 및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공동 R&D 등 전략적 협력 지원 확대
 - * 고온형 수전해(SOEC) 등은 적기 시장진입을 위해 해외기술 도입 검토 필요
- 핵심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R&D/실증 우선 지원(연 1회 수요조사)

②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

- **(초기수요 창출)** 수소충전소(설치지원금), 수소터빈(입찰시장) 등 보급 제도 설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부장 제품의 활용도 제고*
 - * [수소충전소] 유지·보수 서비스 안정성 평가 / [수소터빈] 국내 경제·산업기여도 평가
- 수소선박, 이동식 수소발전기는 지자체, 군·경 등에 시범 보급하고, 국산 수전해 설비 상용화 전후로 한국형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
 - * ^[24~]원전수소, 10MW급 → ^[27~]재생e-원전 연계, 100MW급 → ^[30~]완전 상용화, GW급

- **(규제개선)** 실증용 제품에는 제조시설 검사를 면제하는 신속 검사 체계를 도입하고, 신규 분야의 합리적 안전기준*을 조속히 마련

* [예] [액체수소] 대용량 저장탱크 안전기준 / [수소배관] 고압 기체배관 안전기준

-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수소 소부장 관련 현장 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, 즉각 개선 추진

* 금년 접수된 건의에 대한 규제개선안은 '24년초 발표(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/F)

- **(사업화 기반)** 수소기업 유치·집적화를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소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소기술연구원* 설립 검토

*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(과기부), 기존 17개 수소 시험평가센터 등과 연계 검토

- **(전문인력 양성)** 지역연계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*하고 지역 소재 대학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

* [지원대학] ⁽²³⁾3개교 → ^(24~)13개교 / [예산] ⁽²³⁾15.6억원 → ^(24 정부안)67.6억원

③ **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**

- **(핵심광물 수급관리)** 수소산업 활용도가 높은 백금류·희토류 5종을 핵심광물로 지정·관리*하고, 자원안보특별법 등 법적 근거 확보(²⁴)

* 現 33개 광물을 38개로 확대하고,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

- **(공급망 상시 관리)** HSK 코드에 연료전지·수전해·수소차 고유 품목 코드를 마련(^{25~})하고, 주요 소부장 제품 수출입 동향 정기 분석

- **(GVC 참여)** 해외 완성품 업체에 소재·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 대상으로 기술역량 강화 및 해외 검·인증 지원 프로그램 확대

- 공공기관 주도로 암모니아·액체수소 등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참여 비율 확대 방안* 검토

*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소재·부품의 국내생산 및 향후 국산화 추진계획 등 평가

- **(글로벌 기업 육성)**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수소전문기업^{PLUS}로 육성하고, 소부장 으뜸기업에 수소 소부장 기업 신규 선정 추진

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

2023. 12. 18.



관계부처 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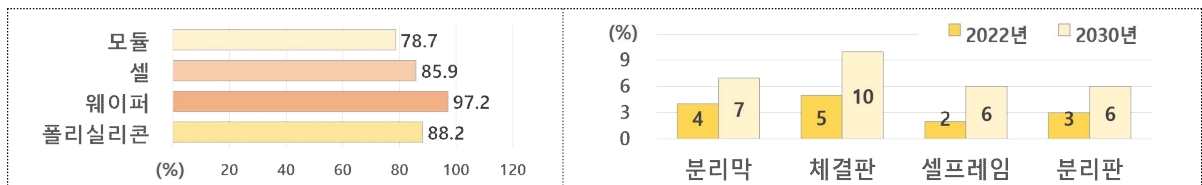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수립배경	1
II. 수소 소재부품장비 산업 진단	2
III. 비전 및 추진전략	11
IV. 주요 정책과제	12
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	12
②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	16
③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	19
V. 주요 추진일정	21

I. 수립배경

- **(수소산업 경쟁력 강화)** 수소산업 육성 초기부터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

- 핵심 소부장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, 미래 원천기술 확보 추진



〈 글로벌 태양광 시장점유율(중국산) 〉 〈 알칼라인 수전해 소부장 원가 비중 전망 〉

- **(에너지안보)** 안정적인 수소의 공급 및 활용을 위해서는 수소산업 소부장의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(Resilience) 확보가 필수 조건

- 핵심 소부장 내재화 및 해외 공급망 다변화로 견고한 GVC 구축

〈 연료전지 및 수전해 주요 공급망 이슈 〉

소재	수전해			연료전지		
	니켈 메시	양이온 교환막	이어노머	전극촉매	개질기 촉매	고분자막
리스크	해외의존도	원천기술 부족		원재료 수입		전량 수입

- **(주력산업 탈탄소화)** 자동차, 조선,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수소 기반 탈(脫)탄소화 지원

- 경제성 있는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소부장 기술 혁신이 관건

시점	목표
'26년	· 철강·시멘트 등 탄소국경세 본격 적용
'30년	· 친환경차 누적 3,000만대 판매
'30년	· 그린수소 1,000만톤 생산
'50년	· 운송분야 탄소배출 90% 감축



〈 EU 환경규제('21년, Fit for 55) 〉

〈 산업 탈탄소화 : 철강 〉

- ◇ '22.11월 5차 수경위 계기에 발표한 「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」을 뒷받침하기 위한 「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」 추진

* (5차 수경위 국무총리 말씀) 수소산업 초기 단계부터 관련 소부장 준비 필요

- 소부장 핵심전략기술*에 포함할 수소산업 핵심 소부장 품목 및 기술을 발굴하고, 공급망 내재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강구

* 기존 7대 분야에 수소, 우주, 방산을 추가하여 10대 분야로 확대 결정('23.4월)

II. 수소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진단

1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

- 70~80년대 석유 위기시 대체 에너지로 수소가 주목을 받은 이후, 기후변화 대응, 러우 사태 등으로 글로벌 수소산업은 성장기에 진입
- 수소 생산 관련 산업 규모는 '22년 1,600억 달러에서 '27년 2,635억 달러로 연평균 10% 이상 증가할 전망('22, Markets and Markets)





〈 '50년 수소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 : 총 2조 달러〉

생산(4,190억 달러)		유통(6,130억불)		활용(9,970억불)	
그린수소 (수전해)	210억\$	액화터미널	3,030억\$	교통수단(FCEV)	6,370억\$
		수소선박	360억\$	선박	620억\$
블루수소 (SMR/CCS)	870억\$	수입터미널	1,480억\$	철강	140억\$
		파이프라인	720억\$	발전	1,420억\$
수소 판매 (그린+블루)	3,110억\$	트레일러	70억\$	난방	1,420억\$
		수소충전소	470억\$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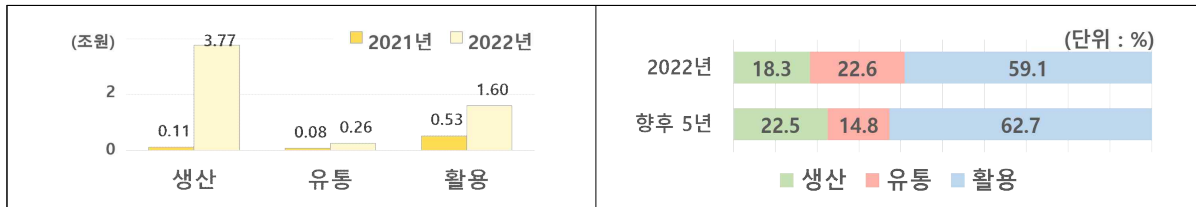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딜로이트('22)

- 해외 주요국은 탄소중립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며, 이에 맞춰 민간투자도 지속 확대 추세
- * 국내 기업도 '30년까지 수소 분야에 50조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
- '19년 세계 수소 수요는 9천만톤이었으며,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'30년 수소 2억톤이 필요(IEA, '22)

〈 주요국별 대표적인 수소산업 육성 정책 〉

 미국	• 「인플레이션감축법안(IRA)」 內 그린수소 생산,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 등 수소산업 활성정책을 통한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
 E U	• 러-우사태 이후 러시아産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「RePowerEU」 등 정책 발표('30년 수전해 40GW 설치)
 일본	• '30년 수전해 15GW를 설치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, '50년 수소수요 2천만톤 확보를 위해 대규모 수소공급망 및 활용처 구축
 중국	• 「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」에서 수소차 보급, 그린수소 생산 등 '35년까지 쉐 산업 영역에서 수소활용을 가속화한다는 비전 제시

- 국내에서는 연료전지, 모빌리티 등 활용 분야가 초창기 수소경제를 선도하였으며, 최근에는 생산·유통 등 업스트림 분야도 활성화



〈 수소산업 국내 신규투자 〉

〈 산업별 신규채용 비중(21) 〉

- 석유·화학, 자동차, 조선,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축적한 기반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소산업에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

사 례

- **LG화학** : 석유화학 클로르알카리 공정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클로르알카리와 구조가 유사한 알칼라인 수전해(AEC) 시스템의 핵심 소재 자체개발 추진 중
- **광신기계공업, 삼성이엔씨** : CNG 충전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충전소용 압축기와 냉각기를 국산화하였으며, 현재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중

- 일부 대기업은 전략적으로 수소산업에 진출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생태계 구축

사 례

- **현대모비스** : 수소전기차 넥쏘에 탑재되는 PEMFC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기체 확산층(GDL) 등 핵심 부품을 적극적으로 국산화하여 국산화율 99% 달성
- **두산퓨얼셀** : PAFC 발전용 연료전지를 국내생산하며 전력변환장치, 개질기 등 350개 국내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국산화율 98% 달성(1차 협력사 기준)

- 일부 분야는 해외 기업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위치에 있으며, 국내 기업은 기술제휴 등을 통한 협력 추진 중

사 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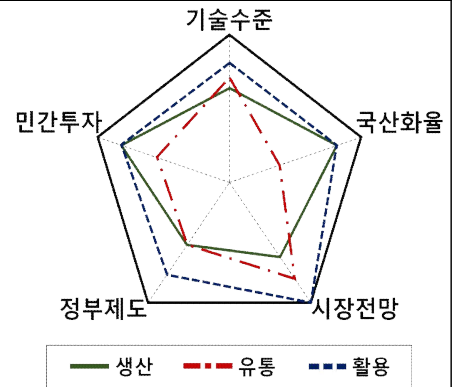
- **액화수소플랜트, 액체수소 운반차량** : 美Plug Power, 獨Linde, 佛Air Liquide 등 해외 기업의 기술 기반이며, 핵심 설비는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
- **액체수소충전소** :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·부품을 자체개발 중이나, 기술 격차 및 내구성, 트랙레코드 未확보 문제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

2

주요 분야별 분석

< 총 괄 >

- ◇ **(생산)** 기술개발이나 해외 기술제휴를 통해 신속히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
- ◇ **(유통)** 국내 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바,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기 기술수준과 국산화율 제고 필요
- ◇ **(활용)** 세계적인 수준의 보급실적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



1. 수전해

(선진국 대비) 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70%	70%	300억불 이상

- 국내 중소기업에서 1MW급 수전해 시스템을 상용화하였으나('19~, 잠수함용 수소 생산), 해외 선도기업 대비 성능 및 생산능력 취약
- 최근 주요 국내 대기업이 자체개발 및 해외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수전해 산업에 신규 진출 추진 중

< 국내/해외 알카라인 수전해 비교 >

	국내	해외
스택교체주기(년)	5	10 내외
생산효율(kWh/kg-H ₂)	58	55 내외
시스템 용량(MW)	1 내외	10 내외

< 주요 대기업 신규 진출 동향 >

LG	대면적 알카라인 수전해 전극 개발
한화	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개발
두산	英 Ceres Power사와 제휴
SK	(E&S) 美 Plug Power사와 제휴 (에코플랜트) 美 Bloom Energy사와 제휴

- 핵심 소재·부품은 해외 의존 중이나, 연관산업 역량(화학 등), 수전해와 유사한 연료전지 제조역량 등을 감안시 글로벌 선도기업 추격 가능

* (가격경쟁력 부족) 다공성 니켈 소재, 방폭센서, 분리막 등
 (기술력 부족) 분리판, 고분자 전해질 소재, 다공성 확산층 등

- 한편, 수전해 관련 규제가 R&D 및 사업화 단계에서 장애요인

* 차세대 수전해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로, 추가 안전기준 마련시까지 사업화 지연

2. 수소충전소

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50%(액체) ~ 90%(기체)	20%(액체) ~ 50%(기체)	100억불 이상

- 기체충전소는 국내기업이 압축기, 충전기 등 주요 설비를 국산화 하였으나, 보급 초기인 액체충전소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해외 수입

< 주요설비 국산화 현황 >

	저장탱크	압축기	충전기
기체	80% (고압용기 해외수입)	50%	50% (유량계, 호스, 노즐 등 해외수입)
액체	0% (국내 연구개발 단계)		

- 액체수소 확산에 대비한 액체수소 소재·부품 개발 가속화 및 내구성 등에서 해외대비 열위인 기체수소 핵심 부품의 신뢰도 제고 필요

* (액체수소 핵심 소재·부품) 극저온 단열소재, 액체수소 저장탱크
(기체수소 핵심 부품) 다이어프램(압축기), 수소 유량계

3. 수소 운반차량

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60%(액체) ~ 90%(기체)	20%(액체) ~ 90%(기체)	10억불 이상

- 기체수소는 국내 기업이 450bar 저장탱크 개발('21) 이후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, 3톤급 액체수소 탱크 트레일러도 개발 중

- 장거리·대용량 운송에 적합한 액체수소 탱크로리는 해외 기업이 먼저 상용화하였으며, 국내는 아직 개발 단계로 산업기반 취약

	국산화율	세부내용				국내기업
기체수소 운반차량	100%		200bar	450bar	700bar	일진하이솔루스 엔케이텍
		1회 운송량	300kg	500kg	11,00kg/	
		개발현황	상용화	규정 정비 중	개발 중	
액체수소 운반차량	-		해외	국내	비고	크리오스, 디엘
		운송량	3~45톤	3톤	도로법 등을 고려	
		개발현황	상용화	개발 중	3톤급 개발 중	

-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고압기체수소 저장용기의 탄소섬유 와인딩 장비와 액체수소용 초저온 고압 밸브 및 실링 소재 국내개발 추진

4. 액체수소 운송선

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30%	0%	10억불 이상

□ 국내 업체는 '29년 수소 3천톤급 시범선 출시 목표로 개념설계 중

	한국('30)	일본('22)	최종 목표(한국)
수소 운송량	3,000톤	88.5톤	11,000톤
소부장 자체조달률	0%	-	100%

□ LNG 운반선 제작역량 등 국내 조선업체 기반 역량은 충분하나, 극저온 대용량 원심펌프, 밸브 등 핵심 부품 국산화율 제고 필요

○ 액체수소 출하·하역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

5. 모빌리티용 연료전지

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90%	95%	300억불 이상

□ 현대차에서 넥쏘를 출시('18)하면서 국산화율 95%를 달성하였으며, 트럭·버스·건설기계 등 상용차로 활용처 확대 추세

○ 육상 모빌리티 외에 해상, 항공 분야에도 연료전지 적용 확산 중

분야	주요 기업	현황
승용차	현대	• 1세대 넥쏘 '22년 세계시장 점유율 58% ('24년 2세대 출시 예정)
상용차	현대	• 상용차 해외 초도품 수출 및 현지 운영 테스트 중
항공	두산, 한화	• 항공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경량과 기술 개발 중 (~'25)
선박	두산, 범한	•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설계 기술 개발 중 (~'25)

□ 이오노머, 전극소재 등 고부가가치 핵심 소재는 국내생산 가능한 기업이 부재하여 원소재 도입 후 1차 가공을 통해 일부 활용 중

○ 단기적으로 핵심 소재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, 중장기적으로 수입한 원료 물질의 가공기술 개발로 국내 소재 공급망 확보 필요

6. 발전용 연료전지

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95%	90%	100억불 이상

- 국내 기업이 해외 원천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, 기술제휴를 통해 제품을 생산 중이며, 일부 모델은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

	인산형(PAFC)	고체산화물형(SOFC)
원천기술	美 ClearEdge('14년 인수)	美 블룸에너지('19년 합작법인 설립)
국산화 현황	셀·스택 일부 소재 제외 대부분 국산화 완료	전해질, MFC 국내 생산업체 발굴 중

- 주변기기, 시스템은 국산화율이 높으나, 셀·스택 등 핵심 부품과 셀 내부의 소재·부품*은 기술격차로 여전히 해외 수입에 의존

* 촉매·전극 소재, 밀봉소재 등은 국내생산 가능한 업체 부재

- 고부가가치 품목의 해외 수입 비중 절감 및 국내 생산공정의 효율 개선으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신규 분산전원 수요 창출 가능

- 성능 및 내구도의 핵심인 셀·스택 원천기술을 확보하고, 범용 핵심 소재 및 공정 불량률 저감 기술개발로 가격경쟁력 제고 추진

7. 수소터빈

기술수준	국산화율	시장전망('30)
80%	90%	300억불 이상

- 기존 LNG 복합화력 발전기술을 기반으로 두산, 한화 등 대기업이 LNG-수소 혼소 및 수소 100% 전소 발전 기술개발 중

	혼소	전소
두산에너지빌리티	270~380MW급, 50% 혼소 기술개발	대형(380MW), 중소형(5~90MW) 기술개발
한화에어로스페이스	-	40MW급 전소 기술협력 추진
한화임팩트	80MW급, 59.5% 혼소 실증	-

* 해외 선도기술은 1MW급 전소 실증 완료(日 Kawasaki 중공업)

- LNG 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진행 중이나, 고온용 설비 등 수소 전환을 위한 일부 소재·부품은 해외 수입

- 터빈 제작을 위한 고내구성 금속, 열차폐 코팅소재 등 핵심 소재 중심으로 국내 기업을 육성하여 전반적인 국산화율 제고 추진

8. 기타

① 암모니아 합성·분해

- 국내와 해외 모두 연구개발 단계로 시장 형성 전이나, 청정수소 생산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원천기술 확보 필요
 - 핵심 소재인 암모니아 합성·분해 촉매 등 관련 원천기술 확보시 화학플랜트 산업 기반 기술과 연계하여 신속한 역량 강화 가능

② 수소 저장·배관

- **(수소배관)** 기존 산업에서도 배관을 사용 중이나, 대량의 수소를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고압 수소배관 신규 건설 필요
 - 고압 수소배관 구축을 위해 수소취성에 강한 소재 개발이 요구
- **(수소저장합금)** 국내 기업이 상용화*하였으며, 잠수함·지게차 등 경량화 필요성이 크지 않는 모빌리티에 활용 가능성이 큰 산업
 - * 3,000톤급 장보고-Ⅲ 잠수함에 저장압력 64bar 미만의 수소저장합금 탑재
 - 합금비율 조정을 통한 스펙 다양화 및 상용화 안전기준 마련 추진
- **(LOHC*)** 수소의 대량 해상운송 방식 중 하나로, 스케일업 가능한 대용량 반응기 및 탈수소화/수소화 반응 촉매 국산화 필요
 - *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: 액상유기화합물을 이용한 화학적 수소 저장 방식

③ 수소엔진

- 내연기관의 구조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여 모빌리티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, 수소 활용처 다변화에 기여
 - 기존 자동차 산업 소부장 생태계 유지 및 신산업 발전·전환 지원

< 국내외 주요 기업 동향 >

(韓) 현대인프라코어	· 11L급 수소엔진 시제품 출시('23.2) 및 34톤 굴착기 실증 예정
(日) Toyota(토요타)	· '22년 1.6L 3기통 수소엔진이 탑재된 프로토타입 SUV 발표
(獨) Deutz(도이치)	· 6기통 200kW급 수소엔진 개발 진행 및 '24년 생산 목표
(美) Ford(포드)	· 터보차저 수소엔진 특허출원 등 연구개발 착수

①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간 경쟁 및 전략적 제휴에 신속 대응

- 원천기술 확보 및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의 경쟁과 연관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
- 정부 R&D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* 우리 기업의 자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공동 R&D, 기술제휴 지원제도 보완도 중요

* 수소·연료전지 R&D 성공률이 84.4%이며, 사업화율은 37.7% 수준(최근 5년 평균)

⇒ 원천기술 개발과 실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&D 및 실증사업 지원체계를 개선하고, 기업 간 협력·제휴 지원 강화

② 수소산업 가치사슬에서 핵심 소부장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

- 일부 핵심광물, 소재 및 부품을 특정 국가 및 기업에 의존*
 - * 예 수전해·연료전지 핵심 광물인 백금류(루테튬·로듐·이리듐)과 희토류(이트륨·스칸듐)이 「핵심광물 확보전략」(23.5)상 핵심광물에 未포함(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광물로 관리)
 - * 예 1차 협력사 기준 국산화율 90% 이상인 연료전지도 원소재 국산화율은 40% 미만
- 대체재 개발,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가 필요

⇒ 시장 전망, 수입대체 필요성,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토대로 수소산업 소부장 핵심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·관리 필요

③ 수소산업 소부장에 특화된 보완 정책 마련

- 초기산업인 수소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제도 도입 필요

⇒ 기존 소부장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, 수소산업 특화 정책 추가 수립

	기존 소부장 정책	수소 특화 정책
기술개발	· 소재부품기술개발(23년 9,376억원)	· 수소 R&D 혁신 방안
실증·상용화	· 신뢰성 향상 지원사업 · 소부장 실증기반 강화사업	· 수소 특화 인프라 구축 · 초기수요 창출 지원 등
규제개선	· 규제 하이패스(으뜸기업)	· 합리적인 수소 안전기준 마련

참 고

소부장 핵심품목 선정과정 및 주요 품목 예시

〈 소부장 핵심품목 선정 진행 과정 〉

시기	협의체	주요 내용
~'23.5	연구용역, 수소PD단 자문	• 7대 전략분야, 53개 후보품목 선별
'23.6	1차 회의(산학연 전문가)	• 12개 추가 발굴 → 7대 전략분야, 70개 후보
	2차 회의(산학연 전문가)	• 3개 분야 10개 추가 발굴 → 10개 분야, 80개 후보
	평가위원회	• 10개 분야, 핵심품목 40개 최종 선정

〈 소부장 핵심품목 선정 결과 〉

분야	수전해	충전소	운반차량	운송선	모빌리티 연료전지	발전용 연료전지	수소터빈	신분야(3)	총계
품목수	11	4	3	3	5	4	3	7	40

〈 (예시) 생산, 저장·운송, 활용별 주요 핵심품목 〉

생산	
	【소재】 니켈 Lath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개요) 알칼라인 수전해 전극을 코팅하는 기재가 되는 니켈 망 • (선정이유) 국내는 생산설비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중국에 수입 의존 중
	【부품】 PEM 수전해용 분리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개요) 산소극과 수소극을 분리시키는 금속판으로 주로 Ti 소재 사용 • (선정이유) 국내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, 해외 제품에 의존 중
저장·운송	
	【부품】 액체수소 펌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개요) 액체수소(-253℃)를 이송하기 위한 액체수소용 극저온 펌프 • (선정이유) 개발역량은 있으나,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국산화 미흡
	【부품】 다이어프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개요) 수소가스를 압축하는 핵심부품으로 대용량 수소압축기에 사용 • (선정이유) 원소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성 부족으로 가격경쟁력 취약
활용	
	【소재】 이오노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개요) 전극에서 생성된 이온을 전달하고 전해질막과 촉매를 연결하는 소재 • (선정이유) 원료 부재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대체 기술개발 필요
	【소재】 수소터빈용 고온 금속 소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개요) 고온부 부품 원 소재로 고온(850℃)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합금 • (선정이유) 국내는 연구개발 단계임에 따라,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

III. 비전 및 추진전략

비전

- ✓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

목표

- ✓ '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% 달성 ('22년 40%)
- ✓ '30년 글로벌 수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('22년 2개)

추진 과제

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

- 1 범부처 연계 지원 강화
- 2 수소연료전지 R&D 지원 체계 혁신
- 3 미래 원천 소부장기술 확보 지원
- 4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 및 기술제휴·투자유치 지원

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

- 5 초기수요 창출
- 6 규제개선
- 7 사업화 기반 확충
- 8 수소 전문인력 양성

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

- 9 수소산업 핵심광물 수급 관리 강화
- 10 공급망 상시 관리 체계 도입
- 11 국내 기업의 해외 GVC 참여 지원
- 12 글로벌 소부장기업 발굴·육성

IV. 주요 정책과제

1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

① 범부처 연계 지원 강화

- (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정) 수소 10대 분야 40대 소부장 핵심품목 주요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지원('23.下)
-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소부장 핵심기술개발 R&D, 으뜸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

〈 수소기술 주요 지원제도 현황 〉

기술	주요 지원내용	소관
국가전략기술	• R&D투자(최대 50%), 시설투자(최대 25%) 세액공제	기재부
신성장원천기술	• R&D투자(최대 40%), 시설투자(최대 18%) 세액공제	기재부
국가필수전략기술	• 예타기간 단축, R&D 예산 적극 반영, 특화대학 운영 등	과기부
국가핵심기술	• 기술 해외유출 방지	산업부
핵심전략기술(신규)	• 소부장 R&D 지원, 규제 패스트트랙, 으뜸기업 선정 등	산업부

※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술도 40대 소부장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대상 세부기술 지속 확대 추진

- (부서간 연계 강화) 기술성숙도(TRL) 및 시장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별로 적합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지원

低(원천기술 확보) ← 기술 및 시장성숙도 → 高(신속한 사업화)

· 원천기술개발(과기부)	· 소부장 핵심기술개발(산업부)
· 수소중점연구실(과기부)	· 수소연료전지핵심기술개발(산업부)

- 범부처 수소 R&D 협의체*를 신설하고, 관련 부처간 지원 분야와 역할을 조율하여 통일된 목표하에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 추진

* 부처별 역할 예시 : ▲ 산업부(수소산업 육성 및 진흥 총괄), ▲ 과기부(미래원천기술 확보), ▲ 산업부·국토부(육상모빌리티), ▲ 산업부·해수부(해상모빌리티) 등

□ **(실증 지원)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시제품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양산 촉진형 R&D 신규과제 기획**(‘24년~)

- 수소 R&D 로드맵의 각 분야별 기술 목표*를 상회하는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

* 7대 전략 분야 주요 기술 목표를 우선 제시하고, 3대 신분야는 ‘24.上 목표 설정

	현행 방식	개선 방향
참여대상	제한 없음	시제품 보유 기업
과제기획	수요조사 기반으로 기획	시제품 검토 후 실증과제 도출
과제범위	기술개발 및 실증	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
수행기관	산·학·연 컨소시엄	원칙상 보유 기업 단독*
수행기간	최대 5년	2년 내외(최대 3년)

* 신기술 및 신제품 적용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

③ 미래 원천기술 확보 지원

□ **(수소생산) 수소생산 기술별 맞춤형 추진체계 개편**

-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, PEM 수전해 등은 기술개발 전담기관인 ‘국가 수소중점연구실’ 지정(‘23.下) 및 핵심 기술 국산화 추진(‘24~)
- 기술개발 후 실증 단계에 있는 AEM, SOEC 수전해는 셀·스택 핵심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 착수(‘24~)
- 연구 단계 기술인 광분해, 메탄 분해 등을 통한 수소생산 분야는 기초연구성과 평가(‘24.下)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별 과제 지원

□ **(수소 저장·운송) 대량의 수소를 상온·상압에서 고효율로 저장하여 장거리를 운송하기 위한 국내 자체 기술개발 지원**

- 고성능·장수명 LOHC 촉매 연구개발을 지원하고, 해외 청정수소 도입 사업과 연계한 암모니아 합성·분해 기술개발 사업 추진

④ 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인수합병 지원

- **(기술제휴)** 해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투자(합작법인 설립 등) 및 국내외 기업 간 국제 공동 R&D 등 전략적 협력 지원 확대

사 례

- **SK E&S** : '22년 美 Plug Power社와 합작법인(JV)를 설립하고, 수전해(PEMEC) 및 연료전지(PEMFC) 등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및 핵심 기술 내재화 추진 중

- 기존 에너지국제공동연구(R&D) 사업('23 예산 229억원)을 기반으로 '24년부터 수소 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 과제* 확대 추진

* 해외 수요자 맞춤형으로, 국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수단으로 적극 활용

- 기반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과 해외 선도기업 간 기술도입형 및 기술협력형 국제 R&D 과제 발굴·추진('24~)

* **(기술도입형)** 해외 기술(background)을 기반으로 국내 기술역량(foreground) 확보
(기술협력형) 해외 원천기술 기업과 공동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기획

사 례

- 국내 D사는 해외 C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고온형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중
- 국내 Y사는 해외 E사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EM 수전해 시스템 생산 추진

- **(인수합병)** 단기간 내에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(M&A)을 통한 생산역량 확보를 지원하여 적기 시장진입 추진

- 해외 원천기술 도입 이후 신규 협력업체 발굴·육성 등 국내 핵심 소부장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기업 육성 R&D 사업* 확대

* 완제품 생산 기업의 국내 공급망 확보 계획 평가 후 지원(연 1회 수요조사 실시)

사 례

- **두산퓨얼셀** : '14년 美 Clear Edge 인수로 인산형 연료전지(PAFC) 원천기술을 확보하고, 상품성을 제고하여 국내시장 1위, 해외 수출 3.5억불 달성('22말)

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

⑤ 초기수요 창출

□ (정책시장) 입찰시장, 보급사업(보조금) 등 초기시장 창출 지원

- (수소충전소) 수리, 교체 등 유지·보수 안정성 평가를 지속 강화하여 압축기 등 핵심 부품은 국내 공급망을 갖춘 제품 활용 촉진
- (수소터빈)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시('24.上), 비가격평가 요소를 활용하여 연소기·터빈 등 국내 소부장 기업 참여도 제고 유도

* 입찰서 평가시 비가격지표 중 하나로 국내 경제·산업기여도 포함

- (수소엔진) 국산 수소엔진차 시제품 생산 시점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 등 친환경차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여건 조성

* 친환경차 요건 관련 규정 : 친환경자동차법(산업부)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) 등

□ (공공수요) R&D 후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수요처 확보

- (모빌리티 연료전지) 선박용 범용 스택 개발 후 지자체·해경 등과 연계한 수소선박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모델 출시 기반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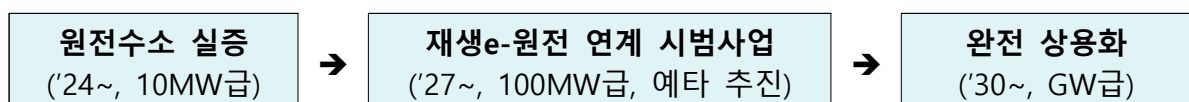
* 지자체어업지도선, 해경순찰선 등을 수소선박으로 전환·실증 후 일반 선박까지 확대

- (발전용 연료전지) 민·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이동식 수소발전기를 '28년까지 상용화하고, 육군이 우선구매 후 사용처 확산

□ (한국형 청정수소) 국산 수전해 설비 상용화 전후로 재생e 간헐성을 보완*하고,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

* 수전해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가동률 30~40% 이상으로 계속 운전 필요

< 한국형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안 >



⑥ 규제개선

- **(실증제품 신속검사)** 신속한 수소 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·실증용 제품은 상용제품과 다른 별도의 전용 검사체계 적용
 - 개발 중인 수소 제품은 제조시설 검사 없이 제품검사만 실시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신속 검사체계 도입 검토(∼'24, 가스안전공사)
- **(상시 규제개선)**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·관 협의체('23.5~)에 '소부장 작업반'을 신설, 소부장 관련 규제의 상시 접수 및 즉각 개선 추진
 - * '23년 접수된 건의에 대한 규제개선안은 '24년초 발표(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/F)
 - 액체수소, 대용량 수소배관 등 안전기준이 아직 없는 新분야에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

〈 수소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계획(예시) 〉

분야	규제개선 내용	기한
수전해	• (애로) 현장에서 직접 제작·설치시에도 제조시설 검사가 필수	'23
	• (개선) 제조시설 검사를 시설검사로 대체 추진	
충전소	• (애로) 안전거리를 확보 의무에따라 도심내 입지가 곤란	'23
	• (개선)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시 안전거리 확보 인정	
수소운반	• (애로) 기체수소 복합재(Type4) 용기는 대용량 수소운송이 제한	'25
	• (개선)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및 복합재 용기 안전기준 개발	
운송선	• (애로) 액체수소 하역, 인수기지 설치 및 운영 관련 기준 부재	'24
	• (개선) 액체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, 적하역 시설 안전기준 마련	
모빌리티 연료전지	• (애로) 건설기계, 트램 등 차량용 外 연료전지 안전기준 부재	'24
	• (개선) 실증을 통해 각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추진	
발전용 연료전지	• (애로)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LPG충전소에 설치가 불가능	'24
	• (개선) LPG 충전소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허용	
수소터빈	• (애로) 개발·실증 단계 제품에도 상용 제품과 동일한 검사 적용	'25
	• (개선) 개발중인 제품은 전용 검사체계를 적용하도록 개선	

⑦ 사업화 기반 확충

- **(H₂ 캠퍼스)** 각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을 유치 및 집적화하고,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수소특화단지(가칭 H₂ 캠퍼스) 지정('24~)
 - 특화단지에 산업용 수소 공급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, 향후 실증·시범사업은 지역별 H₂ 캠퍼스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
 - 집적지 이외에 국책사업 확정* 또는 주요 앵커기업 투자 확정 등 집적 유망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新산업 생태계 구축
- * 예 수소 클러스터 예타 통과(포항 연료전지), 수소특화 국가산단(울진, 완주) 등
- **(지원인프라 확충)** 지역 수소시험평가센터(전국 17개 구축·운영 중)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수소 소 주기 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 강화
- * 수소산업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험평가센터별 장비 활용·연계 확대 추진
- 기업 기술애로 해소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지원기관으로 민간 주도의 수소기술연구원(산측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) 설립 검토

⑧ 수소 전문인력 양성

- **(융합인력 양성)**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수소분야 중점 기술*별로 연구개발, 산업 등 융합 인력 육성 집중 지원(~'30)
- *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계획('23.4월)에서 수소 7개, 연료전지 7개 포함 118개 선정
→ (수소) 인프라, 수전해, 암모니아 / (연료전지) 수요처 다양화, 고효율 설비 등
- 수출특성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정책, 통상, 인증 등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·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
- **(교육과정 개설)** 수소융합대학원(現 4개), 수소혁신연구센터(現 2개) 확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지역 특화 분야 수소학과 신설(現 5개)
- 기존 수소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지역연계 사업으로 확대·개편*('24~)하여 지역 특화 수소산업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
- * (지원대학) ('23)3개교 → ('24~)13개교 / (예산) ('23)15.6억원 → ('24 정부안)67.6억원




⑨ 수소산업 핵심광물 수급 관리 강화

- **(핵심광물)** 수소산업 활용도가 높은 광물 5종*을 핵심광물로 지정('24, 現 33개에 추가)하고, 자원안보특별법 신설 등 법적 근거 확보

* 수전해·연료전지 제조에 활용되는 백금류(루테튬·로듐·이리듐), 희토류(이트륨·스칸듐)

- 글로벌 공급망 변동 등을 감안, 주요 광물 목록은 주기적 업데이트

〈 해외 주요국 핵심광물 관리 현황 〉

 미국	• '13년 35종 → '22년 50종으로 확대(백금류 5종, 희토류 16종 등)
 E U	• '11년 14종 → '23년 34종으로 확대(스칸듐, 백금족, 탄탈륨, 텅스텐 등)
 일본	• '23년 현재 총 34종 관리 중(백금족, 희토류, 비스무스, 규소 등)

- **(대안기술 개발)** 희소금속 사용량 저감 및 대체제 기술개발 지원

* [예] 수전해 장치의 전극에 사용되는 백금과 이리듐의 사용량 저감 기술

⑩ 공급망 상시 관리 체계 도입

- **(HSK코드 신설)** 수소산업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국제교역 통계에 활용되는 HSK코드에 별도 품목 코드 마련('25~)

* (현황) ·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와 함께 '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차량(870380)'으로 분류
· 연료전지는 별도 기준이 없어 직류발전기, 교류발전기, 축전지 등으로 신고

- 우선 수소차, 수전해, 연료전지부터 고유 코드 신설을 추진하고, 향후 기타 산업 분야 및 소재·부품 등 세부 품목까지 범위 확대

- **(글로벌 공급망 정기조사)** 신설된 HSK 코드를 바탕으로 수소산업 주요 완제품 및 소재·부품의 수출입 동향 정기 분석(격년) 추진

- 품목별 수출입 규모, 핵심 소재·부품의 대외의존도 및 특정국 수입 비중 등 공급망 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

⑪ 국내 기업의 해외 GVC 참여 지원

- **(GVC 편입)** 국내 소부장 기업이 해외 완성품 업체에 일부 소재·부품을 공급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
 - 해외 기업의 요구 규격·성능에 맞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R&D 및 해외인증지원단과('23.4월 신설) 연계한 해외 검·인증 지원 확대
- **(국내 인프라 참여)** 공공기관 주도로 해외 기술 기반 국내 대규모 인프라* 구축시 국내 소부장 기업 참여 비율 확대 추진
 - * 암모니아 및 액체수소 인수기지, 수도권 수소배관 등
 - 사업자 선정시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재·부품의 국내 생산 가능 여부 및 향후 국산화 추진 계획 등 평가

⑫ 글로벌 소부장기업 육성·발굴

- **(수소전문기업 PLUS 도입)** 수소전문기업 중 소부장 기술력을 갖춰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수소전문기업^{PLUS}로 발굴·지원
- **(으뜸기업 지정)** 수소 기술의 핵심전략기술 지정('23.下) 이후 수소전문기업 일부를 '24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 추진

〈 수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프로그램(案) 〉

예비전문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수소분야 지식재산권과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 • (지원) 기술사업화, 인력양성 등 전용 사업에 대해 최대 7천만원 지원
수소전문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수소사업 매출액과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업 • (지원) 기술사업화, 판로개척 등 기업당 연간 최대 1.5억원 지원
전문기업 PLUS ^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수소전문기업 중 소부장 핵심기술, 해외매출액 등 기준으로 선정 • (지원) 해외인증 획득, 해외전시 지원 등 지원한도 상향 조정
소부장 으뜸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 • (지원) 5년간 '기술개발 → 사업화 → 글로벌 진출' 등 밀착 지원

V. 추진일정

주요 과제 및 일정

소관부처(협조)

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

• 수소 소부장 기술의 핵심전략기술 지정 ('23.下)	산업부
• 수요연계 및 양산촉진형 신규 R&D 발굴 ('24)	산업부(과기부)
• 3대 신분야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('24)	산업부
• 미래 원천기술 국가중점연구실 지정 ('24)	과기부
• 기술협력형 국제 공동 R&D 사업 공모 ('24)	산업부

②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

•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('24.上)	산업부
• 10MW급 원전수소 실증사업 착수 ('24)	산업부
• 실증제품에 대한 신속 검사체계 도입 ('24)	산업부
• 액체수소, 수소배관 관련 안전기준 신설 (~'25)	산업부
• 수소특화단지(^{가칭} H ₂ 캠퍼스) 신규 지정 ('24)	산업부

③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

• 수소산업 주요 광물의 핵심광물 지정 ('24)	산업부
• 수소차·수전해·연료전지 고유 HSK코드 신설 ('24)	기재부(산업부)
• 수소산업 공급망·수출입 동향 분석 ('24~, 수시)	산업부
• 수소전문기업 ^{PLUS} 신규 지정 ('24)	산업부

산업통상자원부
수소산업과

담당자 (총괄)	최현상 사무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3-3973 E-mail : saangy@korea.kr